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지가 되기를 ...

己 卯年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펴내 온 월간 <국방과 기술>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육군 전 장병과 더불어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고도의 정보화 시대로 급속하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개인생활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장차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생존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기술은 국력”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수준의 전쟁위험은 감소될 것이지만 질서개편 과정에서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증대될 것이며, 한반도 안보상황 또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증폭될 전망이어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전은 첨단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20세기 산업시대 전쟁에서 경험했던 차원을 뛰어넘어 첨단 군사과학기술 장비와 시스템을 이용한 혁신적인 전쟁수행 개념과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미래전은 지상에서 우주까지 전장영역이 대폭 확장되고, 고도의 정보전과 미사일전, 그리고 전후방 동시 입체고속기동전 수행이 불가피할 것이며, 전투형태도 확대된 전투 공간에서 전투력을 통합하여 적 중심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다차원 동시통합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추구해야할 군사기술혁신의 방향도 적을 신



속히 찾고 탐지를 거부하는 기술, 실시간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 전장내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술, 그리고 무인 원격조종 기술과 비살상기술 혁신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육군은 이처럼 예상되는 21세기의 전략환경과 미래전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전쟁수행태세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상작전 운영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도 군사과학기술의 토대위에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특히 국방과학기술의 자주적 역량확보는 21세기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전문지인 <국방과 기술>은 앞으로도 육군장병들에게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흐름의 이해와 관련기술을 적시에 습득하게 할 뿐 아니라, 21세기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북돋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주국방과 육군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무궁한 발전과, 월간 <국방과 기술>이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지로 도약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기를 육군 전 장병과 더불어 기원합니다.

육군참모총장 金 東 信